

보안기술에 대한 규제개선 방향

오픈넷

김기창

2013.2.27

현행 규제 개요

- 공인인증서 사용 ‘강제’ (감독규정 37 조)
- “보안프로그램 설치 등” 보안대책, “고객의 책임으로 동의”? (감독규정 34 조 2 항 3 호)
- 거래매체 / 인증매체 분리 (감독규정 34 조 2 항 5 호)
- 보안성 심의 (감독규정 36 조)

-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제공할 ‘본인확인’ 수단 (여전감독규정 24 조의 6 제 1 항)
- 신용카드정보 “처분 · 소거 또는 폐기 등” 보안대책 (여전감독규정 24 조의 6 제 3 항)

보안상의 문제점 1

- 공인인증서
 - User 장치에 보관 / User 에 대한 공격 / 대량 유출
 - 고정암호 수준
- 보안프로그램 설치
 - “플러그인 설치”가 초래하는 위험 / 제약
 - “합리적인 보안대책”
- 거래 / 인증 매체 분리 ?
 - 공인인증서는 거래매체에서 ‘분리’되는가 ?
 - 위험 수준을 고려한 2 channel 인증 ‘권장’

보안상의 문제점 2

- ISP / 안심클릭
 - ISP: 과연 '추가적' 인증 수단인가?
 - 안심클릭 : V3D 를 플러그인으로 구현 ?
 - User authentication 이 만능인가? 사인패드 ?
- 카드정보 '처분, 소거 또는 폐기 등'
 - One-click check out
 - User profiling 에 기반한 fraud detection
 - '불편'하기만 하면 '안전'해지나 ?

“보안성 심의”의 새로운 이해

- 제 3 자의 검증은 필요 / 유용함
- 보안 감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
- 보안 감사 기준은 업계가 global standard 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립 / 유지할 필요
- “감독규정” 중 기술적 디테일은 과감히 생략 : 개정 !
- 금융위 / 금감원은
 - 솔루션을 실제로 채용하기 전에 독립적인 제 3 자의 보안감사 서비스를 받도록 확보하는 선에서 감독, 관리
 - 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,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 제공
 - 금융 소비자 보호, 분쟁 해결 과정 모니터링



6:38

항공권 결제

신용카드

카드사 BC카드(우리,하나BC 포함) ▼

할부 일시불 ▼

1. KB카드, BC카드, 우리카드, 수협카드, 우체국카드, 저축은행

- 모바일용 ISP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사용 가능

- 30만원 이상 구매 시 모바일용 ISP 어플리케이션 및 공인인증서 설치 후 사용 가능

2. 신한카드, 현대카드, 하나SK카드

- 30만원 이상 구매 시 각 카드사별 어플리케이션 및 공인인증서 설치 후 사용 가능

3. 삼성카드

- 30만원 이상 구매 불가

4. 기타카드

- 구매 불가(향후 서비스 예정)

결제하기

현행 감독 체제가 드러내는 모순

-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
 - 아이튠즈 스토어
 - 구글 플레이 스토어
-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 / 위험 / 손해
 - 설치, 설치, 설치; 입력, 입력, 입력!
 - “부인방지”? 사고거래 책임소재,
 - 해킹 공격의 대상
 - Patchy support
- Amazon, Paypal ...